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박갑수**

1. 서론

한반도가 분단된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북의 동질성을 상실해 이민족 국가로 오인되거나 앓을는지 염려스럽다.

우리 겨레는 남북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같이 하던 독일이 통일된 뒤 이 소망은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되었다. 그리하여 각계에서는 통일의 가능성을 점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통일 이후의 교육에 대한 논의도 자못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 언어 문제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국어 교육의 문제는 별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있다면 장막에 가려졌던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남북의 교육의 차이가 다소 논급되

* 이 글은 1998. 8. 21.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여름학술발표대회,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주제 발표 논문임.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강선옥(1987),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연구, 홍익어문 6, 홍익대학교
김대행(1994), 남북의 문학과 국어 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김동규(1992), 북한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단원 분석, 인문대 논문집 10,
고려대 인문대
김민수(1994), 남북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박갑수(1994), 남북의 어휘와 국어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_____ (1995), 남북 음성언어 교육의 비교 연구, KBS 한국어 42, 남북
한 방송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비교연구 VI, 한국방송공사
윤희원(1989), 북한의 국어교육에 관한 한 고찰, 주시경 연구 4, 탑출판
사
윤희원 외(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사대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이인제(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전수태(1992), 북한의 국어 교과서 분석,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
구원
정주리(1989), 남북한 교육실태 연구, 북한의 어학혁명, 녹진
진태하(1989), 남북한 국어교육 정책 비교연구, 통일 93, 통일원
_____ (1989), 남북한의 국어교육정책과 통일방안, 새국어교육 45, 국어
교육학회
최현섭(1993), 북한 국어교육 이론 고찰, 한글 222, 한글학회
최현섭·이인제(1996),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
석연구,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통일원(1987),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내용 분석: 정치 사상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통일원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문제
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언어 규범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나아가 남북의 국어교육의
현황이 살펴져야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국어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언어 규범

2.1. 국어교육은 우리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인 우리말의 남북의 실상이 어떠한가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언어는 공용어이다. 이는 남한의 경우 네 개의 규범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1988)」, 「표준어 규정(1988)」, 「외래어 표기법(198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이 그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조선말 규범집(1987)」에 수록된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 발음법」과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에 수록된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외국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 「조선어의 어음 전사법」이 이러한 규범이다. 다만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은 1984년 「고친 외래어표기」로 수정이 가해졌고, 이와는 달리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표기하기 위해 1969년 「외국말 적기법」이 별도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1985년 「외국말 적기법」으로 수정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규범 가운데 대표적 규범인 맞춤법과 발음법을 중심으로 남북의 공용어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남북의 맞춤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들의 異同은 어떠한가? 두 규범은 통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심각하지는 않다. 그것은 양쪽이 다 종래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형태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칙은 같고 세부적 사항이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맞춤법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북한의 「맞춤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의문형 어미를 「-는가」로 적는 것.(제6항)
- ② 말줄기의 모음이 「ㅣ, ㅑ, ㅕ, ㅗ, ㅛ, ㅜ, ㅠ」인 경우 줄기 「하」와 마찬가지로

- 로 어미를 「-여/-였」으로 적는 것.(제11항)
- ③ 본딴말에 뒤붙이 「이」가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 것의 어원을 밝히지 않는 것.(제23항)
 - ④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제25항)
 - ⑤ 한자말에서 모음 「ㄷ」이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 「계,례,혜,예」만을 인정한 것.(제26항)

①은 남한에서 의문형 어미를 「-ㄹ까, -ㄹ꼬, -ㄹ쏘냐」와 같이 된 소리로 적기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고, ②는 북한이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형태주의적 원칙을 깨고 표음주의적 표기를 해 달라진 것이다. 「구태여, 도리어, 드디어」도 같은 예이다. ③은 종래의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같은 것으로, 남한에서 1988년 맞춤법을 개정하며 달라진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기로 하여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④는 두음법칙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남북의 표기에 대표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ㄹ」두음과 구개음화된 「ㄴ」두음의 문제로, 종래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던 것인데 북한에서 표기법을 개정하여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⑤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계,례,메,폐,혜,예」를 인정하던 것인데 북한의 「맞춤법」에서 「메,폐」를 인정하지 않으며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남쪽의 「한글맞춤법」에 의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

- ①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을 「열,율」로 적는 것.(제11항)
- ② 부사에 「-이」가 붙어서 같은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 것.(제25항)
- ③ 「이(齒,蟲)」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 「니」로 적는 것.(제27항)

- ④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제30항)
- ⑤ 접미사 「꾼」을 된소리로 적는 것.(제54항)

①은 음운론적 조건이 다를 때 변이음을 인정한 것이나,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는 원어를 달리 사정해 1988년의 개정에서 차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③도 음운론적 조건을 인정하여 그 형태를 달리 사정한 것이다. ④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음운론적 조건을 고려하여 합성어에 사이시옷을 붙이게 된 것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사이표를 치는 단계를 거쳐 오늘날은 원칙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⑤의 접미사 「꾼」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군」이던 것이 국정 교과서의 「꾼」을 거쳐, 1988년의 개정에서 된소리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①③④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변이형태를 인정해 표기가 달라진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포함된 띄어쓰기는 북한에서는 따로 「띄어쓰기」라는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원칙은 같으나, 세부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남북의 큰 차이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많이 붙여 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로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 문제」(박갑수, 1995)로 미룬다.

2.3. 맞춤법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에는 마땅히 표준어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 규정이 북한에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는 「표준발음법」만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준발음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의 발음법도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준어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 두음법칙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음운 동화의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의 발음은 대체로 원칙은 같으나 지엽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원칙과 허용의 넘나들이 심하다. 이는 양쪽의

언어를 차이 나게 할 수도 있고, 통일의 거멸뭇이 되게도 할 것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이번에는 남쪽의 「표준발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표준발음을 남한에서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북한은 문화어의 발음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제1항)
- ②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저,찌,쳐」는 [저,찌,쳐]로 발음하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ㄴ」은 [ㄴ]로 발음한다는 것.(제5항)
- ③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것.(제10항)
- ④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스,츠,ㅋ,ㅌ,ㅍ,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디그시, 지으시, 치으시, 키으기, 티으시, 피으비, 히으시]로 발음한다는 것.(제16항)
- ⑤ 받침 「ㅁ,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하는 것.(제19항)
- ⑥ 「의견란, 결단력」 등의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는 것.(제20항)
- ⑦ 용언 「되어」[되여], 「피어」[피여]와 「이오」[이요], 「아니오」[아니요]의 발음을 허용한 것.(제22항)
- ⑧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ㄷ,ㅂ,ㅅ,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것.(제28항)
- ⑨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야,여,요,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냐,녀,뇨,뉴]로 발음한다는 것. 그리고 「붙임」의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를 [ㄹ]로 발음하고,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는 것.(제29항)
- ⑩ 「ㄱ,ㄷ,ㅂ,ㅅ,ㅈ」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 그리고 사이시옷 뒤에 「ㄴ,ㅁ」이 결합되는 경우에 사이시옷은 [ㄴ]으로,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는 것.(제30항)

①은 각각 서울말과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②의 「저, 쨌, 처」는 단모음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자음을 첫소리로 한 「ㄴ」을 「ㄷ」로 발음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된소리 자음과 결합될 때는 북한에서도 허용한다. ③은 북한에서는 [비]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이는 남한의 제10항 「뱃-」을 「밥」으로 발음한다고 한 예외 규정과 같다. ④에 대한 북한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문화어 발음법」의 정신으로 보아 원음을 연음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⑤는 북한에 따로 규정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에 제시하는 제5항과 같이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⑥은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설측음화란 원칙은 남북이 같으나, 예외적인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예외는 다음에 보이는 제23항에 제시되어 있다. ⑦은 북한에서는 발음에 앞서 표기를 바꾼 것이다. 따라서 남쪽에서 허용 아닌 원칙적인 발음을 하게 되면 북한과 발음의 차이가 나게 된다. ⑧은 사이시옷의 규정과 관계되는 것으로 북한의 제28항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들의 발음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적은 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어휘에 한해 [ㄷ]소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바닥, 노래소리, 사령부자리」가 남한에서와는 달리 [개바닥, 노래소리, 사령부자리]와 같이 된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⑨는 음운 첨가 현상을 규정한 것으로 북한의 제26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남한이 원칙으로 하는 규정인데 대해, 북쪽은 허용 기준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붙임」의 규정은 북한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⑩은 북한의 제28항 및 제27항과 관련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 발음도 적은 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의 경우 [ㄷ]을, 그리고 [ㄴ]을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

이게 된다.

이 밖에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에 의해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ㄹ」 뒤에 있는 「ㄱ」은 [ㄱ]로 발음한다는 것.(제4항)
- ②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ㄴ」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제5항, 제6항)
- ③ 「선열, 순열, 순이익」 등 일부 굳어진 단어의 경우 적은 대로 발음함으로써 닳기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제23항)

①은 남한에서 「예,례」 이외의 「ㄱ」은 [ㄱ]로 발음한다고 「례」의 이중모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단모음화한 것으로 본 것이다. ②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ㄹ」의 경우는 비음화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③은 설측음화가 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의 경우 발음 이전에 이미 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곧 남한에서는 이들은 「선열, 순열, 순이익」이라 표기되는 것이다.

이 밖에 「표준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ㄹ), ㄷ(ㄷ, ㅌ, ㄴ), ㄷ(ㅍ, ㅌ, ㅍ, ㅍ), ㅍ(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ㅍ, ㅍ,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한 규정은 북한 규범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발음을 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기본적인 음운현상이기에 북한에서는 규범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남북한 국어 교육의 현황

3.1. 남북한 국어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이것은 남북의 교육과정

과 교재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국어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목표부터 보기로 한다.

북한의 국어 교육의 목표는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1987년 펴낸 「인민학교 교수방법」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인민학교 국어교육의 목적은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키워주고,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 줌으로써 그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 인재로 키우는 데 있다.

이렇게 북한의 국어교육의 목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 인재를 키우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 시키고,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키워주고, 우리말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갖추어 주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언어를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무기로 보는 북한의 언어관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고등 중학교 「국어 문학」의 교육 목적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1983년 개정된 과정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고등 중학교 4~6학년용 교수요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중학교 「국어 문학」 과목 교육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적 언어문예사상,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언어문예방침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기초 지식과 실천기능을 키워주고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 끊임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데 있다.

남한의 국어 교육의 목표는 이와 사뭇 다른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인 10학년까지의 「국어」 교육의 「목표」이다. 이렇게 남한에서는 국어과를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교육부, 1997)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국어교육이 정치 사상 교육에 중점이 놓이는 데 대해, 남한의 국어교육은 언어의 기능 교육에 중점이 놓인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3.2. 국어과 교육의 내용은 교육과정 또는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교육과정은 입수가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불가불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추정하게 된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인민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보면 우선 그 교육 내용은 제재면에서 볼 때 문종 및 주제에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문종에 대한 조사로

는 한국교육개발원 국어 연구실의 분석표가 있다(최현섭 외, 1996).

순위	계재문종	남한(제재수)		북한 제재수	%
		4학년까지	6학년까지		
1	생활	149	196	19	11
2	동화전래	75	110	8	5
	창작	69	108		
3	시	106	179	40	23
4	쓰기제재	92	139	0	
5	설명	81	129	51	29
6	논설(토론)	30	60	2	2
7	전기	27	46	25	14
8	편지	24	35	3	1.8
9	일기	17	21	3	1.8
10	속담	16	87	0	
11	수수께끼	13	14	0	
12	회곡	12	26	2	
13	기행	11	17	3	1.8
14	말놀이	10	0	0	
15	회의록	8	19	0	
16	소설	7	15	1	0.6
17	독후감	7	12	1	0.6
18	방송자료	5	0	0	
19	기사문	1	0	0	
20	이야기	0	0	17	10
21	대화	0	0	1	0.6
		760	1213	176	

이 도표를 통해 남북의 제재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문장의 종류와 빈도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빈도의 면에서 북한의 경우는 설명, 시, 전기, 생활, 이야기, 동화의 순으로 빈도가 낮

아진다. 그래서 남한과 비교할 때 설명, 이야기, 전기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동화, 논설, 생활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의 면에서 보면 북한의 교과서는 언어와 언어 기능에 대한 지식과 문학에 대한 지식 외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는 제재가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제재는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100여개가 보인다(이인제, 1996). 북한에서는 글의 갈래를 크게 생활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 논리적인 글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문학적인 글과 생활적인 글에 이러한 주제의 제재가 많다. 이러한 주제의 제재는 김일성과 김정일 및 그 일가의 업적 찬양과 충성심 고취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아 59.1%를 차지한다. 그리고 혁명의식 고취와 공산주의 사상 교양에 관한 것이 19.1%, 반일·반미의 적개심 고취 및 대남 비방과 왜곡 선전을 주제로 한 것이 11.8%로 나타난다.(이인제, 1996) 이러한 제재의 선정은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제시한 원리인 혁명전통 교양의 원리, 중요성 고취의 원리,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원리 등을 중시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제재 외에도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도처에 김일성 교사와 김정일의 말씀이 담겨 있다.

다음에는 영역별 교육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경우는 설명적 교재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보면 말하기 15.2%, 읽기 16.9%, 쓰기 44.1%, 문화어 지식 23.8%로 나타나며, 「련습」 활동에 반영된 학습 요소는 말하기 19.4%, 읽기 37.8%, 쓰기 5.8%, 문화어 지식 37.0%(최현섭 외, 1996)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어 지식이 가장 빈도가 높고 그 다음이 읽기, 쓰기, 말하기의 순이 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언어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듣기 영역의 내용이 빠져 있다. 말하기는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발음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도 연접이 강조되고 있다. 「련습」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도 「자기말로 이야기하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하기」는 미미한 빈도를 보인다. 남한은 발음보다

화법에 중점이 높이고, 억양 등 광의의 연접이 강조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박갑수, 1995). 읽기도 북한은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글의 이해, 분석, 평가와 같은 고등 수준의 독해는 배제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원문 통달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쓰기는 글쓰기, 글씨쓰기, 띄어쓰기로 나누어지는데, 위의 통계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지식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작문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쓰기는 텍스트 수준보다는 문장 수준의 지도를, 그리고 짧은 글짓기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에서는 쓰기와 관련된 지식으로 쓰기의 과정별 주요 개념, 쓰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은 물론 글의 내용 구조, 표현 방법, 고쳐쓰기와 관련된 것 등을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언어 지식에 관한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같아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의 언어지식 교육 내용은 새 단어 만들기와 어의 파악 및 문화어와 관련된 지식이 강조된다. 문화어와 관련된 지식은 문화어의 용법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표현이 주종을 이룬다.

3.3. 다음에는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10학년까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국어」 교육과정은 제10학년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연계되는 선택과목은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여섯 과목이다. 이러한 편제는 북한의 그것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에서는 고등 중학교 1~3학년에서는 국어를 4~6학년은 국어문학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어 문학」은 어문학, 특히 문학에 관한 지식 학습과 작품 감상 활동을 강조한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민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제재의 문종과 주제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의 고등 중학교 국어 및 국어 문학 교재의 문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4학년 교재 제외)

순위	문종	제재수	구성비(%)
1	설명	50	35.7
2	소설	35	25.0
3	시	24	17.1
4	전기	12	8.6
5	희곡	6	4.3
6	생활	4	2.9
7	기행	3	2.1
8	구연	2	1.4
9	편지	1	0.7
10	기타	3	2.1

북한의 고등 중학교 교과서의 제재는 첫째 설명적인 글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인민학교와 같은 경향으로, 국어과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개념, 원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해설하거나 설명한 것이다. 둘째, 문학적인 작품에는 소설과 시가 많고, 실기, 회상 실기, 덕성 실기, 혁명 가요 같은 생소한 갈래의 글이 들어 있고, 셋째, 생활적인 글 가운데는 선전글, 서정글과 같은 특수한 글의 갈래가 들어 있다.

다음에는 주제면에서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교육의 목표인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혁명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가 무려 78.4%나 된다.

주제	소설		동화		이야기		시		희곡		전기		기행		일기		생활문		계		
김일성 일가의 업적 찬양과 충성심 고취	7						12	4	8	3							4	38			
혁명의식 고취와 공산주의 사상 고취	10	1	1	7	1										1						21
반일 반미의 적개심 고취, 대남 비방과 왜곡 선전	4		2	1	1										1	1					10
기타	6	4		4		4			4										1		19
	27	5	3	24	6	12	3								2	6					88

이러한 제재는 바로 북한의 고등 중학교에서 「과목 교수에서 해결할 과업」(교육위원회, 1984)으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첫째로, 모든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풍부한 정서를 가진 공산주의 혁명적 인재로 키워야 한다.

따라서 이는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남한의 국어 교육의 제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고등 중학교 4~6학년의 「과목교수에서 해결할 과업」으로는 위에 제시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더 들려진다.

둘째로,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독창적인 문예 이론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 문화어의 기초 이론과 문학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문학작품을 자립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매 시기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서와 세계문학의 기초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을 완성하여야 한다. 살려 읽기와 속 읽기 기능을 완성하여 글을 유창하게 빨리 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기능을 완성하여 당 정책 해설, 토론, 웅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기, 감상문, 기행문, 벽소설 등을 쓸 수 있는 글짓기 기초 기능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영역별 교육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입수할 수 있는 북한의 「교수 요강」은 고등 중학교 4~6년용 「국어 문학 교수 요강」 뿐이다. 따라서 고등 중학교 1~3학년의 내용은 해당학년의 교과서에 제시된 「련습」 활동을 분석하여 내용 체계를 추출하게 된다.

고등 중학교의 말하기는 인민학교와 비교할 때 형식상 말하기 활동이 이야기 활동보다 많아졌으며, 말하기 교육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체계화되었다. 북한은 말하기의 기능으로 자세히 말하기, 말할 내용의 조직하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남한은 말하기의 형식이 좀더 다양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읽기는 북한의 경우 읽기의 원리, 방법 및 절차와 책략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인민학교에서보다 강화된 것이다. 낭독 중심의 내용 선정은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이다. 읽기와 관련된 지식으로 북한에서 읽기의 방법, 글의 갈래, 글의 종류별 특성, 짜임 등에 관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것은 남한과는 다른 점이다. 남한에서는 보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쓰기는 남한의 경우 쓰기에 관련된 지식, 기능 및 활동, 태도 및 가치의 세 가지 범주를 선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가운데 태도 및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글쓰기를 지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조건에 맞는

바꾸어 쓰기를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글씨 쓰기를 고등 중학교 1학년에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하다. 언어 지식 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경우 학년별로 안배되어 있다. 어휘, 맞춤법은 1학년에, 음운, 문장, 문자는 2학년에, 띄어쓰기는 3학년에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음운 어휘 문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한 것이다. 남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하게 되어 있는 한글 자모에 관한 내용이 고등 중학교 2학년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다. 맞춤법 띄어쓰기가 남한과는 달리 고등 중학교의 내용으로 많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용적인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에는 남한의 고등학교 과정, 북한의 4~6학년의 국어 문학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북한의 말하기 교육의 내용은 줄거리 말하기와 웅변하기의 두 가지로 남한에 비해 단순하다. 읽기 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경우 살려 읽기와 살려 읊기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독해 관련 내용을 여전히 선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쓰기 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경우 과제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적 이유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사, 벽소설, 영화 문학 등에 대한 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쓰기에 관한 일반 지식 외에 글쓰기의 여러 가지 원리 및 실재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어 지식은 북한의 경우 학년별로 안배하고 있다. 4학년에 품사와 토, 5학년에 문장의 종류 및 문장 성분, 6학년에 단일문과 복합문을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에서는 또 북한의 언어 정책 및 김일성 부자의 주체의 언어 이론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남한에서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어사에 대한 교육을 의도하여 선정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문학 교육의 내용은 문학에 관한 지식과 작품의 이해 및 감상에 관한 것의 두 가지이다. 북한의 경우 문학에 대한 지식으로는 ①북한문학 일반에 관한 지식 ②당의 문예정책에 관한 지식 ③문학일반에 관한 지식 ④문예작품 갈래에 관한 지식 ⑤창작과 문예사조에 관한 지식 ⑥조선문학사의 전

개와 관련된 지식 등이 들려진다.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교육 내용은 주체의 문예이론과, 북한 나름의 논리에 따라 형성된 이론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서 선정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문학 교육에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남한에서는 문학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문학의 이해와 한국문학사 이해를 위한 내용과 문학 작품 감상을 위한 것이 선정된다. 이뿐 아니라 문학의 이해와 작품의 감상이 교육적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관련지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3.4. 이 밖에 교육 내용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에 언어가 있다. 이는 2장에서 논의한 언어 규범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표준어의 발음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는 「표준어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2장에서 표준어, 또는 문화어에 대해 논의를 유보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교육의 내용으로서 논의돼야 할 대상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에는 체제와 관련되어 김일성 일가와 관련되는 언어, 혁명의식 고취와 관련되는 언어, 적대의식 고취와 관련되는 언어가 따로 쓰여 이것이 언어 일반 또는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그리고 문화어의 보급도 문제이다. 남북의 어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제도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 지역 방언이 문화어가 된 것, 말다듬기로 차이가 나게 된 것, 어의변화로 차이가 나게 된 것, 표기가 달라 차이가 나게 된 것, 발음이 달라 차이가 나게 된 것, 표기와 발음이 다 같이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문체와 문법적 호응이 다른 문장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 밖에 전문 용어로 국어교육의 용어, 교수 학습의 용어도 차이가 나 통일을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이에 대한 상론은 줄이기로 한다.

4.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에 대한 대책

사람들은 남북의 통일을 말할 때면 우선 언어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도 아니니 이것부터 통일함으로 통일의 물꼬를 틔우자고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지만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언어의 문제는 이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어교육의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는 여러가지가 들려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몇 가지 소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언어 규범을 통일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인 언어 규범인 맞춤법과 표준발음법은 통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이 아니다. 맞춤법은 남북이 다같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공용해 왔다. 그러던 것을 북한은 1954년에, 남한은 1988년에 개정함으로써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는 앞을 내어다 보고 동질화가 되도록 개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질화가 되게 개정하였다. 앞으로 개정을 한다면 동질화를 도모하도록 할 일이다. 그리고 통일을 꾀한다면 「표준체제 구안통합」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준체제 구안 통합」이란 「통일보고서」의 남북 교육통합의 세 가지 방법 「흡수통합」, 「연방식통합」과 함께 제시된 「표준교육체제 구안에 의한 통합」이란 말을 전용한 것이다. 「표준체제 구안 통합」이란 한글맞춤법은 남북이 같이 쓰던 1933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정신으로 돌아가 통일을 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말이다. 표준발음법도 「표준체제 구안통합」 방식이 좀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양쪽이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발음은 맞춤법과 표리 관계가 있으니 다 같이 「표준체제 구안통합」 방식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이다. 그

러나 표준어의 문제는 다르다.

둘째, 표준어는 「연방식 통합」을 한다.

표준어의 문제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정신에 따라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반세기 동안 다른 규범을 학습하고 생활해 온 국민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차이가 나는 말을 조사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사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연방식 통합」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정하는 경우 사정해 놓은 낱말의 수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실용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의 어휘나 표현이 다른 경우 양쪽을 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외형상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복수 표준어로 정착하든지, 아니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 하나가 도태되든지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어휘를 망라한 통일 국어대사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 작품을 교재화한다.

언어의 동질화를 꾀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언어에 대해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상호 접촉하는 길밖에 없다. 서로 접하노라면 그 말 또는 표현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친숙하게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작품을 교재에 수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언어를 큰 부담없이 이해 학습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교재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음성언어 동질화에 기여하게 할 것이다.

넷째, 교육 목표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하겠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것」이다. 남한의 교육 목표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

르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정치 사상 교육에 중점이 놓이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언어의 기능 교육에 중점이 놓인다. 이는 천양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교육의 목적을 고수하는 한 국어교육의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고 나라가 어느 한쪽으로 흡수 통일되지 않는 한, 국어교육의 목표도 「흡수 통일」될 리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도 「표준체제 구안통합」이란 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전제 국가 아닌, 민주 국가의 교육의 목표가 특정인에게 「충직한 혁명 전사로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언어의 기능을 투쟁 아닌 협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언어관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가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 과정의 통합이 있어야 하겠다.

교육은 교육의 내용이 결정되고 이것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의 국어 교육은 교육 내용이 다르고, 이것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가 하면, 그 시기 또한 다르다. 이렇게 되어서는 통일된 교육을 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전문가가 협의하여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구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바람직한 교수 방법이 강구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 목표가 합의된다면 그리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오늘날 남북의 교육과정은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점도 많다. 상호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요소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바람직한 요소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것 역시 「표준체제 구안통합」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관련 학자의 접촉이 피해져야 한다.

교육이란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이는 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분명히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통일을 위해 국어교육도 대비해야 한다. 국어교육의 이질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노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자, 국어교육학자의 상호 교류 및 학술토론회를 마련하여 국어 교육의 「표준체제 구안통합」의 계기를 하루 빨리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 박갑수(1995), 「남북 음성언어 교육의 비교연구」, KBS 한국어연구 42, 남북
한 방송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비교연구 VI, 한국방송공사.
- 박갑수(1995),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문제」, 국제고려학회 학술총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3, 국제고려학회.
- 윤희원(1989), 「북한의 국어교육에 관한 한 고찰」, 『주시경 연구』 4, 탑출판
사.
- 윤희원 외(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
석연구」, 서울사대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이인제(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청
구논문.
- 최현섭 외(1996),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연구」,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해주사범대학 외(1973), 『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